



다원예술공연 《Play Home, Sweet Home》 탈영역우정국 6.3~4

분단 재감각하기

영화 <포화 속으로>에서 학도병은 인민군이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인민군이 어머니를 부르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영화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지만, 더 오래도록 기자의 기억에 남은 것은 인민군이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인 줄 알았다는 사실이다. 남한에는 분단과 연관해서 한정적인 이미지들이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다. 검열을 통한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고착화’되어 있고, 그 이미지들은 ‘열화’되어 간다. 반재하는 분단에 대해 서로 다른 경험을 한 개인들을 인터뷰하고 그 감각을 시각화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분단에 관련된 새로운 시각 경험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작가는 북한에 살았던 사람, 북한에 가본 사람, 북한에 가보지 않은 사람을 집단별로 2명씩 섭외하고 “갈 수 없는 어떤 곳에서 살게 된다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묻는다. 그는 인터뷰를 재료로 3차원 그래픽을 경유하여 가상의 집을 두 채 설계한다. “집주인도 가지 못하는, 아니 집주인이 없는” 가상의 집에 초대된 관객들은 룸 투어에서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천장에서는 간헐적으로 종이 다발이 떨어진다. 아니, 떨어진다기보다는 무더기로 쏟아지며 마치 뼈라가 살포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다가가서 살펴보면 종이에는 문구들이 적혀있다. 관람객은 이리저리 눈을 굴리며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하고 부지런히 자리를 움직이며 공연장을 부유한다. 묘사 퍼포머는 가상의 집을 자세하게 묘사한다. 공연장에서 큰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영상은 묘사와 동기화되어 제시된다. 시선을 구석으로 돌리면 각각의 부스에 자리한 미니어처 제작가, 건축가, 일러스트레이터는 자기의 할 일에 열중한다. 그 어떠한 소란이나

사건에도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작업(퍼포밍)한다. 아기자기한 크기의 집을 본드, 가위, 붓 등의 재료를 활용해 똑딱똑딱 만들고,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며 집의 도면을 제작하고, 이젤 위에 캔버스를 놓고 붓으로 집을 속속 그려나간다. 가상의 집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된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세 명의 퍼포머는 오로지 묘사 퍼포머의 설명에 의존해서 미니어처, 도면, 그림을 제작한다. 퍼포머들의 상황은 파편화된 정보를 통해 북한을 감각하는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하다.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실감하지 못하고 다른 매체를 거쳐서 접하는 것처럼, 퍼포머들은 시각적 노출이 없는 상황에서 묘사 퍼포머를 거쳐 상상 속의 집과 만난다.

북한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과 짧게 살았던 사람의 경험, 북한을 예전에 방문한 사람과 비교적 최근에 방문한 사람의 경험, 북한을 근미래에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과 먼 훗날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의 생각은 모두 다르다. 달리 말해, 인터뷰이 6명의 분단에 대한 지각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인터뷰를 재료로 구현된 두 채의 집은 상이한 외양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묘사를 들음에도 한 번도 가상의 집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된 모습을 보지 못한 세 명의 퍼포머(미니어처 제작자, 건축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만들어내는 집 또한 각기 다른 모습이다. 반재하의 다원예술공연은 다양한 결과물을 제시하며 제한적인 이미지의 노출로 인하여 균질화된 우리의 인식에 균열을 생성한다. 자, 온몸의 감각을 일깨워 다시금 분단을 감각해보자.

노재민 기자

공연 전경
사진: 배재원 제공:반재하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묘사퍼포머
사진: 배재원 제공:반재하
미니어처를 제작하는 모습
사진: 배재원 제공:반재하
일러스트레이터가 가상의 집을
그리는 모습
건축가, 부스 오른쪽의 화면에는
제작하고 있는 도면이 실시간으로
보여진다 사진: 배재원 제공:반재하
아래 인터뷰이들이 했던 말 혹은
각종 사진이 인쇄되어있다

